2027학년도 CERMONT 첨예 모의고사 1회

제 4 교시

정답 및 해설(사회·문화)

빠른 정답

사회·문화

1	2	3	4	5	6	7	8	9	10
③	②	④	②	④	⑤	③	①	③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⑤	④	①	⑤	②	④	①	②	③	⑤

사회·문화

1번 정답 ③

▸ ㉠, ㉡은 자연 현상이고 ㉢, ㉣은 사회·문화 현상이다.

해석: ㉠, ㉡은 기온 변화에 따라 나타나고, ㉢, ㉣은 사람의 의지와 가치가 개입되어 나타난다.

① ㉠은 자연 현상이므로 몰가치적이다.

② ㉡은 자연 현상이므로 필연성과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확률의 원리는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이다.

③ 정답이다. ㉣과 같은 사회·문화 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하므로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른 양상을 띨 수 있다.

④ ㉢은 사회·문화 현상이므로 확률의 원리가 적용된다.

⑤ 인과 관계가 불분명한 쪽은 사회·문화 현상인 ㉢이다.

2번 정답 ②

▸ 일부 집단의 문화는 하위문화, 지배적 문화에 저항하면 반문화, 대다수가 향유하면 주류 문화이다.

해석: ㉠은 지역 문화이고, ㉡의 노래는 반문화에서 주류 문화로 바뀌었다. ㉣은 일부 청소년의 문화이다.

① ㉠은 ○○ 지역 주민들의 문화이므로 하위문화이다.

② 정답이다. ㉡은 독재 체제를 비판하고 전면적인 체제 변화를 요구하므로 반문화이다.

③ ㉢은 반문화였던 노래가 주류 문화로 변화한 사례이다.

④ ㉣과 같은 하위문화는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높인다.

⑤ ㉤은 지역 문화를 보존하려는 사업이다.

3번 정답 ④

▸ 필자가 우려하는 것은 감시로 인한 자유의 위축이다.

해석: 수집된 자료는 평가와 분류의 수단이 되고, 사람들은 지켜보는 눈을 의식해 스스로 행동을 고친다. 자료는 유출된 것이 아니라 동의로 모인 것이므로 문제의 핵심은 활용에 있다.

① 정보가 많아 판단이 흐려진다는 내용은 없다.

② 재산 피해는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③ 기기 보유 여부가 아니라 자료를 쥔 쪽과 기록되는 쪽의 관계를 다룬다.

④ 정답이다. '자료를 쥔 쪽은 상대의 일상을 훤히 들여다보지만'과 '스스로 행동을 고치기 시작하고'가 근거이다.

⑤ 익명성을 악용한 명예 훼손은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4번 정답 ②

▸ 제도가 개인의 행위를 떠나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사회 명목론이다.

해석: 필자는 사회를 이해하려면 개인의 바람과 이유부터 살펴야 한다고 본다. '사회가 요구한다'는 표현은 부정하기 위해 인용한 것이다.

ㄱ. (O) 개인들이 무엇을 바라고 왜 행위하는지부터 살펴야 한다는 주장과 일치한다.

ㄴ. (X) 사회 실재론의 입장이다. 필자는 규칙도 구성원이 인정해야 힘을 갖는다고 본다.

ㄷ. (O) 사회 명목론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이다.

ㄹ. (X) 사회 실재론의 입장이다.

따라서 ㄱ, ㄷ이 옳다.

5번 정답 ④

▸ 갑은 자문화 중심주의, 을은 문화 사대주의, 병은 문화 상대주의, 정은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이다.

해석: 병은 그 사회의 맥락에서 이해하자고 하지만, 정은 어떤 기준의 판단도 거부한다.

① 갑은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의 우열을 가린다.

② 자문화에 대한 지나친 우월 의식은 갑의 태도에 대한 비판이다. 을은 자문화를 낮게 평가한다.

③ 자문화의 주체성 상실은 문화 사대주의인 을의 태도에 대한 비판이다.

④ 정답이다. 정은 열두 살 소녀의 혼인 풍습도 문제 삼을 수 없다고 하므로 보편적 가치를 침해하는 문화까지 용인할 수 있다.

⑤ 을도 □□ 부족의 방식을 기준으로 자문화를 평가한다.

6번 정답 ⑤

▸ 사회별로 전파 방식과 문화 접변의 양상을 나누어 판단한다.

해석: 갑국은 ㉠의 고안이 자극 전파, 점령기가 강제적 문화 접변, 독립 후가 문화 공존이다. 병국은 B에게 직접 배운 직접 전파이고, ㉡의 탄생은 문화 융합이다. 을국은 잡지를 통한 간접 전파이다.

① 을국 문자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착안하여 새로 만들었으므로 자극 전파이다.

② 두 문자가 고유한 성격을 유지한 채 함께 쓰이므로 문화 공존이다.

③ 병국이 병국 문자만 쓰도록 하였으므로 강제적 문화 접변이다.

④ 간접 전파가 나타난 곳은 병국이 아니라 을국이다.

⑤ 정답이다. 병국은 B에게 직접 배워 새로운 서체를 만들었고, 을국은 잡지를 통해 받아들였다.

7번 정답 ③

▸ 자료에 적힌 집단을 조직의 공식성과 결합 의지에 따라 분류한다.

해석: 공식 조직은 ○○ 식품 회사, □□ 고등학교, △△ 지방 법원, ☆☆ 시민 단체의 4개이다. 비공식 조직은 사내 등산 모임, 독서 모임의 2개이다. 공동 사회는 가족 1개이고, 이익 사회는 공식 조직 4개와 두 모임을 합한 6개이다.

① 두 역할 사이에서 고민한 사람은 갑이다. 병에게는 그런 내용이 없다.

② ㉠은 성취 지위, ㉡은 귀속 지위이다.

③ 정답이다. 공식 조직 4개는 비공식 조직 2개의 2배이다.

④ 공동 사회는 1개, 비공식 조직은 2개이다.

⑤ 이익 사회는 6개, 공식 조직은 4개이다.

8번 정답 ①

▸ 부모 세대 구성 비율에 자녀 비율을 곱해 인구를 구한 뒤 비교한다.

해석: C에서 A로, A에서 B로의 이동이 상승 이동이므로 B는 상층, A는 중층, C는 하층이다. 부모 세대를 100명으로 놓으면 상층 출신 20명의 자녀는 상층 10명, 중층 6명, 하층 4명이고, 중층 출신 30명의 자녀는 상층 6명, 중층 15명, 하층 9명이며, 하층 출신 50명의 자녀는 상층 5명, 중층 15명, 하층 30명이다.

① 정답이다. 상승 이동은 6+15+5=26명, 하강 이동은 6+4+9=19명이다.

② 세대 간 이동은 45명, 계층 대물림은 55명이다.

③ 자녀 세대는 상층 21명, 중층 36명, 하층 43명이므로 피라미드형이다.

④ 중층은 부모 세대 30명에서 자녀 세대 36명으로 1.2배이다.

⑤ 자녀 세대 상층 21명 중 대물림은 10명이므로 50%보다 낮다.

9번 정답 ③

▸ 갑의 실험 설계와 을이 활용한 자료의 성격을 구분한다.

해석: A 집단은 실험 집단, B 집단은 통제 집단이다. 설문지를 썼어도 처치와 통제가 있으므로 갑의 자료 수집 방법은 실험법이다. 을의 ㉢은 다른 기관이 만든 자료이고, ㉣은 을이 직접 작성한 자료이다.

ㄱ. (O) ㉠은 처치 전, ㉡은 처치 후의 측정이다.

ㄴ. (X) A 집단의 고립감이 유의미하게 낮아졌는데 가설이 수용되었으므로, 영향이 없다는 내용은 가설이 될 수 없다.

ㄷ. (O) ㉢은 기존 자료이므로 2차 자료, ㉣은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이므로 1차 자료이다.

따라서 ㄱ, ㄷ이 옳다.

10번 정답 ①

▸ 갑은 실험법, 을은 문헌 연구법과 면접법을 사용하였다.

해석: 을은 보고서와 통계 자료를 분석한 뒤 개별 대화를 나누었으므로 자료 수집 방법을 두 가지 사용하였다.

① 정답이다. 을은 보고서와 통계 자료를 분석하였고, 갑에게는 그런 절차가 없다.

② 언어적 상호 작용이 필수적인 면접법을 사용한 사람은 을이다.

③ 참여 관찰법의 특징이며 갑, 을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

④ 실험법의 특징으로 갑에게 해당한다.

⑤ 질문지법의 특징으로 을에게 해당하지 않는다.

11번 정답 ⑤

▸ B는 관료제, A는 탈관료제이다.

해석: B는 업무와 결재 단계를 규정으로 정하고, A는 임시 팀이 협의하여 결정한 뒤 임무가 끝나면 해산한다.

① 관료제와 탈관료제 모두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추구한다.

②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쉬운 쪽은 A이다.

③ 예측 가능성이 높은 쪽은 표준화된 절차를 따르는 B이다.

④ 목적 전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쪽은 B이다.

⑤ 정답이다. 규정에 따라 업무를 나누는 B는 권한과 책임의 구분이 명확하다.

12번 정답 ④

▸ 표와 사례를 연결하면 A는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B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 C는 차별 교제 이론, D는 낙인 이론이다.

해석: 첫째 질문에서 A, B는 아노미 이론이고, 둘째 질문에서 D는 낙인 이론이다. A, B는 표만으로 구별되지 않으며, 규범의 약화를 다룬 사례로 A가 뒤르켐의 이론임을 알 수 있다.

①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괴리는 머튼의 이론인 B의 설명이다.

② 사회 규범의 재정립은 뒤르켐의 이론인 A의 대책이다.

③ 부정적 자아의 내면화는 낙인 이론인 D의 설명이다.

④ 정답이다. 일탈의 학습은 차별 교제 이론의 핵심이며 낙인 이론의 설명이 아니다.

⑤ A, B, C 모두 일탈의 객관적 기준을 전제한다.

홀수형

13번 정답 ①

▸ 개인의 상황 해석을 강조하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해석: 사람들은 상황을 해석하고 상대의 몸짓에서 의미를 읽어 행동을 맞춘다. '누가 정해 놓은 규칙이 아니다'는 구조의 강제보다 개인의 해석을 강조한 표현이다.

ㄱ. (O) 상황의 해석을 강조하는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ㄴ. (O) 상징적 상호 작용론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이다.

ㄷ. (X) 갈등론의 입장이다.

ㄹ. (X) 기능론의 입장이다.

따라서 ㄱ, ㄴ이 옳다.

14번 정답 ⑤

▸ A는 절대적 빈곤, B는 상대적 빈곤이다.

해석: 기준선은 t년에 A 150만 원, B 200만 원이고, t+1년에 A 160만 원, B 250만 원이다. 소득이 늘어도 중위 소득이 더 많이 오르면 상대적 빈곤에 새로 해당할 수 있다.

① t년에 B에 해당하는 가구는 (가), (나)의 2가구이다.

② (나)의 t+1년 소득 170만 원은 B의 기준 25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

③ (다)의 230만 원은 160만 원 이상이므로 A가 아니다. B에 해당한다.

④ A에 해당하는 가구는 1가구에서 0가구로 줄었다.

⑤ 정답이다. 세 가구의 소득은 모두 160만 원 이상 250만 원 미만이다.

15번 정답 ②

▸ 사회적 소수자는 인구수가 아니라 사회적 맥락과 차별 경험으로 규정된다.

해석: 갑은 을국의 다수 집단이지만 병국에서는 외국인으로, 사고 후에는 장애인으로 차별을 겪는다. ㉢은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우대 조치이고, ㉣은 이에 대한 역차별 주장이다.

① 갑은 □□족이지만 장애로 인해 ㉡의 차별을 겪었다.

② 정답이다. 을국의 다수 집단이던 갑이 병국에서는 외국인으로 차별받았다.

③ 교통사고로 생긴 장애이므로 후천적 요인이다.

④ ㉢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역차별은 ㉣이 제기한 문제이다.

⑤ 비장애인 구직자는 사회적 소수자 집단이 아니며, 정책의 확대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16번 정답 ④

▸ ㉠은 세계화로 제약된 국가의 모습이고, ㉡은 국경을 넘어 연대한 사회 운동이다.

해석: 정부는 공장 이전을 우려해 규제를 미루었고, 주민과 단체들은 환경 문제를 인류 공동의 과제로 보았다.

① 정부가 규제를 미루었으므로 자율성이 제약된 사례이다.

② ㉡의 목표는 환경 오염 문제의 해결이다.

③ ㉡은 기업의 행동 변화를 요구했을 뿐 체제 변혁을 내세우지 않았다.

④ 정답이다. '인류 공동의 과제라는 인식 아래 국경을 넘어'가 근거이다.

⑤ ㉢은 소비자 참여의 확산에 따른 결과이며, 국제기구의 제재는 자료에 없다.

17번 정답 ①

▸ 갑은 기능론, 을은 갈등론의 관점이다.

해석: 갑은 보상의 차이가 사회에 필요한 역할을 배치하는 장치라고 본다. 을은 기득권층이 보상 기준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정한다고 본다.

① 정답이다. 기능론은 희소가치의 분배 기준에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본다.

② 기능론의 입장으로 갑에게 해당한다.

③ 불평등을 사회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는 쪽은 갑이다.

④ 부모의 재산과 인맥이 대물림된다고 보는 쪽은 을이다.

⑤ 을은 보상 기준이 기득권층에게 유리하게 정해졌다고 본다.

18번 정답 ②

▸ (가)는 진화론, (나)는 순환론이다.

해석: (가)는 사회가 단계적으로 복잡해진다고 본다. (나)는 문명이 일어나고 쇠퇴하며 다시 싹튼다고 보며, 이는 진보가 아니라 같은 과정의 반복을 뜻한다.

ㄱ. (O) 앞선 사회와 뒤처진 사회를 나누는 진화론은 제국주의 정당화에 이용될 수 있다.

ㄴ. (X) 지속적 진보로 보는 쪽은 (가)이다.

ㄷ. (O) 쇠퇴와 몰락을 피할 수 없다고 보는 순환론에 대한 비판이다.

ㄹ. (X) 쇠퇴와 소멸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쪽은 (나)이다.

따라서 ㄱ, ㄷ이 옳다.

19번 정답 ③

▸ A는 사회 보험, B는 공공 부조이며, 계층별 비율을 인구수로 바꾸어 비교한다.

해석: ㉠=100−20−50+30=60, ㉡=100−40=60, ㉢=60+60+10−100=30이다. 전체 인구를 1,000명으로 놓으면 t년은 A만 620명, B만 40명, 중복 60명, 비수혜 280명이고, t+10년은 A만 510명, B만 90명, 중복 90명, 비수혜 310명이다.

① 사회 보험 수혜자 비율은 68%에서 60%로 낮아졌다.

② 공공 부조만 받는 사람은 40명에서 90명으로 2.25배이다.

③ 정답이다. 비수혜자는 280명에서 310명으로 늘었다.

④ 공공 부조 수혜자 중 중복 수혜자 비율은 60%에서 50%로 낮아졌다.

⑤ 사회 보험만 받는 사람은 620명에서 510명으로, 약 1.2배이다.

20번 정답 ⑤

▸ 총부양비와 노령화 지수로 부양비를 구하고, 부양 인구 2배 조건으로 두 나라의 인구를 비교한다.

해석: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는 갑국이 t년 40, 20에서 t+30년 25, 75로, 을국이 t년 20, 30에서 t+30년 25, 50으로 바뀐다. 을국 t년 부양 인구를 100으로 놓으면 갑국 부양 인구는 t년 200, t+30년 160이고, 을국은 t+30년 120이다.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는 갑국이 t년 80, 40에서 t+30년 40, 120으로, 을국이 t년 20, 30에서 t+30년 30, 60으로 바뀐다.

① t년 노년 인구는 40과 30이다.

② t+30년 유소년 인구는 40과 30이다.

③ 갑국의 전체 인구는 320으로 변함이 없다.

④ 유소년 부양비는 갑국이 40에서 25로 줄고, 을국이 20에서 25로 는다.

⑤ 정답이다. t+30년 노년 인구는 갑국 120, 을국 60이다.